

임상약리학 교육: 국내외 대학원 과정 및 전문의 양성 프로그램

신 재 국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인체를 대상으로 약리학 분야인 임상약리학은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치료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 진료 및 학내 및 사회 교육에 참여하는 학문 영역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일정수준의 임상약리학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요구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유럽, 미국 및 일본을 포함한 선진 각 국에서는 오랜 기간 임상약리학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임상약리학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수련 인정 기관에서 최소 2년 이상의 임상약리학 연수가 필요하며 이 기간 동안 biostatistics, drug regulation and development, drug analytical methods, pharmacogenetics, pharmacokinetics/pharmacodynamics, post-marketing surveillance, adverse drug reactions, toxicology/poisoning, drug effects and disposition in special subjects/settings including elderly, pediatrics, organ dysfunction, drug interaction, pregnancy and lactation, substance abuse 등에 대한 교육과 관련 분야 연구가 요구되며, 관련 분야 임상서비스, 약사위원회 및 IRB 업무 등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 등을 가지도록 권장된다. 성공적인 연수 과정을 거친 후 전문의 자격시험을 거쳐서 전문의로 인정을 받게 된다. 전문의는 의사면허를 가진 수련자에게 주어지는 임상약리학 전문의(Certified in Clinical Pharmacology, CP)와 이외의 수련자에게 주어지는 응용약리학 인정(Accredited in Applied Pharmacology, AP)의 두 가지 수준으로 구별되며, 자격시험의 내용도 일정 부분 차이가 있다. 주요 시험의 내용은 CP와 AP 공통으로 평가하는 임상약리 일반원리, 생정통계, 약동학, 약력학, 약물유전학 등의 주제와 CP의 경우 각 영역별 약물군(예, 심혈관계 약물, 호흡기계 약물 등)에 대해 증례 중심의 시험과 AP의 경우에는 보다 심층적인 생정통계, 임상시험 디자인, 고급 약동학, 고급 약력학 등에 대해서 평가하게 된다. 일본의 경우에도 1991년부터 임상약리 인정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37개의 임상약리 연수 기관이 수련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아직 전문의 제도가 도입되지는 않았으며, 따라서 이를 양성하기 하기 위한 통일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이지만 서울대학교 병원을 포함한 일부 대학 및 병원 별로 임상약리학 대학원 협동과정을 운영, 석사 및 박사 과정을 통한 임상약리 전문가 양성, 임상약리 연수의 혹은 수련의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적어도 8개 이상의 대학에서 기초 및 임상과 소속 혹은 독립적인 임상약리학과를 개설하여 임상약리학 수련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임상약리학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최적의 약물치료 기술 개발 및 신약개발 경쟁력 확보 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임상약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